

고영주 OUT

다음은 김장겸이다



사필귀정이고 정의구현이다. 마침내 고영주가 방문진 이사장직에서 쫓겨났다. 언론노조 MBC 본부가 고영주와 김장겸 해임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정확히 60일 만이다. 방문진은 어제(2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김광동 이사의 요청에 따라 비밀 투표에 부쳤고, 6명의 이사들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5 기권 1로 가결했다. 이로써 고영주가 방문진 이사장직을 악용해 저질러왔던 전횡은 막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다. 고영주에 대한 방문진 이사 해임건의안도 통과됐다. 고영주가 일방적으로 폐기시켜버린 경영평가보고서도 되살려 통과시켰다. 시사보도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책임이 김장겸 체제에 있다는 사실이 이제 문화방송 역사에 온전히 각인된 셈이다.

단죄의 대상..즉각 해임해야

고영주는 비상근 이사로 전락했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 MBC를 파괴한 방조자로서 이사직에서도 해임돼야 마땅할뿐더러, 대통령 명예훼손부터 김영란법 위반 골프 접대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는 형사 사건 피의자다. 최근 국감장에선 ‘애국 인사(?)’ 국정원장과 만났다고 시인했고, 피감 중에 특정 정당의 의원총회에 버젓이 참석해 삼각 김밥을 나눠먹는 기이하고도 편향적인 정치 행태까지 노골화했다. 이런 극우 인사는 단 하루라도 방문진 이사직을 맡게 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영주와 그 일당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또 고영주 해임과 별개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그의 불법과 전횡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과 역사의 단죄를 받게 할 것이다.

김장겸 해임안 이르면 다음주 처리

다음은 김장겸 차례다. 어제 정기이사회에선 김장겸 해임안 처리 일정도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권혁철 이인철 김광동 등 적폐 이사들이 고영주 불신임안과 해임건의안 처리에 악약거리다 이사회 회의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처리 일정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 당초 오는 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해임안을 처리할 것이



란 관측도 있었지만, 새 방문진은 오는 8일이나 10일에 임시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사장 해임이라는 중차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어제 회의를 박차고 나간 적폐 이사 3명이 한가하게 태국 출장을 가는 바람에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외유성 출장 때문에 사장 해임을 논의하지 못한다는 핑계는 김장겸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 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악의적인 시간 끌기에 호응해줄 여유도 필요도 없다. MBC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새 방문진은 다음 주 김장겸 해임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김장겸 해임 ‘초읽기’ … 끝까지 총력 투쟁

방문진 이사회, 8일 또는 10일 해임 논의

김장겸 해임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수순’이다. 지난 1일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제출한 새 방문진이 빠르면 오는 6일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논의해 처리할 거란 기대 섞인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진통 끝에 어제 이사회에서 오는 8일 또는 10일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두 날 중 어떤 날을 택일할지는 이 기간 태국 출장을 계획중인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 이사 3명에게 공을 넘겼다. 태국행을 좀 늦춰 8일에 이사회를 열든, 좀 일찍 귀국해 10일에 열든 다음주엔 김장겸 해임안을 논의해 처리하지는 제안이다.

일부 이사 불참해도 해임안 처리해야

MBC 급변 상황에도 태국 출장을 강행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은 별론으로 하고, 일부 이사들의 외유성 출장 때문에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라는 중대 안건을 논의하지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 이사들이 태국 출장을 강행한다면 8일이든 10일이든 다음주 임시이사회 모두 불참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새 방문진은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총과업이 두 달을 넘기는 등 MBC 상황이 너무도 긴박하기 때문이다. 한가롭기 짝이 없는 적폐 이사들의 태국 출장은 취소돼야 마땅하지만, 이들이 불참하더라도 김장겸 해임안은 예정대로

로 다음주 상정시켜 처리해야 한다.

끝날 때 까지 총파업 대오 한 치 흔들림 없다

예정된 수순이라고 하지만 김장겸 해임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이 시간 동안 저들은 막판 발악에 나설 것이다. 어제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보인 적폐 이사들의 시간끌기나 회의장 퇴장 그리고 태국 출장 강행도 결국 김장겸 사장 해임을 최대한 지연시켜 시간을 벌고, 상황을 반전시켜보려는 시도다. 검찰 소환과 방문진 해임에 직면한 김장겸과 부역 경영진 또한 각종 전횡과 불법에 대한 증거인멸 등 벼랑 끝 작태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총파업 투쟁의 고삐를 결코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김장겸 해임안이 처리될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총파업 대오를 유지할 것이다. 저들의 막판 발악과 벼랑 끝 작태에 건건이 대응하고, 그들의 불법 탈법을 끝까지 추적해 폭로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적폐 잔재들의 몽니 회의장 박차고 ‘외유’ 강행?



당연한 해임이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남은 적폐들의 ‘몽니’ 때문이었다. 고영주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약속이라도 한 듯 김광동, 이인철, 권혁철 등 3명의 이사들은 “고영주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표결 연기를 주장했다. 최소한 1~2 차례 이사회를 열어 해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된 정기 이사회는 오는 16일과 다음달 7일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시간 끌기였다.

“방송장악 로드맵” 황당한 주장

그동안 공영방송 MBC에서 수없이 벌어진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안들에는 눈과 귀를 닫았던 적폐 이사들이 이날은 갑자기 ‘원칙’과 ‘절차’를 들먹이며 악다구니를 써댔다. 이인철 이사는 ‘방송장악 로드맵에 따른 방문진 공격’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경영평가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이전 회의에서 폐기한 것을 왜 소급해 다시 채택하느냐’며 얼굴을 붉히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 홀로 남은

김광동 이사는 난데없이 고영주 비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고영주 불신임 표결은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맞서던 김 이사는 어찌 된 이유인지 고영주 불신임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 표를 던졌다. 이후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하던 김광동 이사는 다른 이사회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떴다. ‘법적 효력’ 운운하며 향후 불복의 여지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장겸 해임 늦추려 태국 ‘방탄 외유’ 시간끌기

이 뿐만 아니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 해임안 처리도 지연시키려는 모양이다. 김광동·이인철·권혁철 이사는 오는 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방송 세미나에 참석한다. 3명의 이사가 한꺼번에 자리를 비워 김장겸 해임안 처리를 위한 이사회 자체를 막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방문진 이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이사회 회의장은 박차고 나가면서 굳이 외유 성격이 짙

어 보이는 해외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 야권 추천 유기철 이사는 해당 세미나에 대해 “전 방문진 이사장이 다른 곳은 다 가봤는데 동남아만 안 가봤다며 만든 행사”라며 “태생적으로 부적절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미나는 하루 뿐이고 나머지는 외유성 행사인 만큼 이사들의 행사 참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방문진 이사들도 “3명의 이사들이 굳이 출장을 강행한다면 태국 현지에서 이사회를 열어서라도 김장겸 해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가 급하다. MBC 정상화라는 국민적 요구가 절정에 이른 지금, 적폐 이사들이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공영방송 관리 감독이라는 중대한 책무는 내팽개치고, 김장겸 체제를 감싸는데 급급했던 그들이 또 다시 정치권과 결탁해 MBC 정상화의 시간표를 늦추려 한다면 우리 MBC 구성원들이, 그리고 공영방송 재건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고영주 이사직도 어불성설...당장 해임하라



새롭게 재편된 방문진이 첫 회의에서부터 고영주 불신임안과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데에는 그만큼 고영주를 하루라도 빨리 방문진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현직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 우기는 극우 성향은 물론, 그런 자신을 ‘갈릴레이’라 참칭하는 과대망상까지 지닌 ‘꼴보수’ 인사가 MBC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관리 감독하는 방문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고영주는 탈북단체 지원 등 구여권 이사들이 추진했던 수상한 사업들을 이사회 안건으로 긴급 상정하는 등 그동안 방문진 이사장의 권한을 상습적으로 악용해왔다. 지난 9월에는 '2016년 MBC경영평가보고서' 중 보도-시사 부문 일부 내용에 대해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다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여권 이사들과

함께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법에 명시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무시했고 자료 제출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달 27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도중 점심시간에는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MBC 파업에 대해 발언하는 등 상식 밖의 행보를 보였다. 스스로 자유한국당과 한 몸임을 인정하고 극우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노골화한 것이다.

고영주는 각종 형사사건 피의자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이미 기소돼 법원을 오가며 형사 재판을 받는 처지인데다, iMBC 사장으로부터 초호화 골프 접대를 받는 등 김영란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이사장직은 물론 이사도 어불성설이다. 지금 그에게 어울리는 곳은 방문진이 아니라 검찰 포토라인과 법원, 그리고 감옥이다.

새 방문진은 고영주 이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설 차례다. 차고 넘치는 고영주의 해임 사유들은 최근 방통위의 검사감독으로 모두 확인했을 것이다. 이제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고영주를 당장 해임해야 한다. 더불어 고영주를 비호하고 함께 작당했던 그 일당들도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다.

‘경영평가보고서’도 채택... 김장겸 책임론 공식화

어제 방문진 이사회에선 고영주에 의해 폐기 처분됐던 ‘2016년 MBC 경영평가보고서’ 1차 수정본도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됐다. 해당 보고서의 초안이 완성된 건 한참 전인 지난 6월,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진작 채택됐어야 할 보고서가 여태껏 채택되지 못했던 건 고영주를 비롯한 적폐 이사들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다.

방문진 구여권 이사들은 지난 4개월간 4차례에 걸쳐, 온갖 핑계를 대면서 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특히 ‘보도/시사’ 부문 평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왜였을까. 2016년은 김장겸이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때다. 보고서

는 김장겸 보도본부장 시절, MBC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추락했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외면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장겸 사수대를 자임한 구 방문진은 막무가내로 보고서 수십 곳에 대한 삭제와 수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PD수첩>이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연성화됐다는 비판을, ‘시사프로그램 성격상 공론의 장 역할에 충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포장하라고 강요했다. 적폐 이사들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김장겸과 MBC 경영진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였다. 심지어 보고서 작성자인 김세은 교수에게 찾아가 보고서 수정을 직접 강박하기까지 했다. 이도저도 여의치 않자 고영주

는 지난 9월 7일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폐기해 버렸다. 방문진 역사상 초유의 ‘경영평가보고서 폐기’ 사태였다. 방문진법에 명시된 보고서 채택 의무를 포기한 명백한 직무유기였다.

줄기찬 수정 압박에 폐기 처분까지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경영평가보고서가 뒤늦게나마 본래 취지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어제 방문진에서 채택된 건 큰 의미가 있다. MBC 시사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사실과 그 책임이 김장겸에게 있다는 점까지 공식화된 것이다. 김장겸이 해임돼야 하는 명백한 사유이자 공식적인 근거 하나가 더 늘었다는 의미다.

지역MBC 재건...핵심은 '사장 선임 구조' 개선

광주지부 개최 <리:본(Reborn) 지역MBC> 토론회

지난달 31일 지역MBC의 공영성과 지역성을 고민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열렸다. 광주지부가 개최한 <리:본 지역MBC> 토론회. '리:본'은 'Reborn', 재건을 의미한다. 도건협 수석 부위원장과 전국 17개 지부 구성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MBC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낙하산 구조 타파, 가장 시급한 과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사장 선임 구조의 개선'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지역 공영방송의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그 배경으로 지역방송이 사실상 '내부 식민지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지역MBC는 강한 편성 규제를 받고 있고, 광고 매출 배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와 경영에서도 지배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다. 지역에 필요한 유능한 인사는커녕 지난 수년간 김재철-안광환-김장겸의 아바타들, 함량미달의 낙하산들이 지역MBC사장으로 내리쫓혔다.

낙하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교수는 우선 '사장선임추천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법 제4조 4항 방송편성 규약에 '지역방송 편성규약'을 추가해 지역 방송에 대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1/3을 지역성을 대표하는 이사로 선임하는 방안과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의 도입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박영훈 전국MBC기자협회장은 지역MBC의 실질적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태석 경남지부장은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 지역사를 위해 존재하는 지원 기구들이 실제로는 지역사를 대표할 수 없는 인적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 날선 비판과 응원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더 이상 기계적 중립성 뒤에 숨지 말라"며 진



실을 추구하는 언론사 본연의 모습을 촉구했다. "지역MBC는 그동안 존재의미를 증명하지 못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날선 비판부터 "지금 하려는 개혁을 끝까지 밀고가라"는 응원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전해졌다.

파업 이후, 지역MBC가 당면한 과제들은 한 회사의 역량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다. 공영방송의 복원은 지역MBC가 공영성과 지역성을 회복할 때 완결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역MBC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국경없는 기자회> "김장겸 사장 조속히 교체해야"



**REPORTERS
WITHOUT BORDERS**
FOR PRESS FREEDOM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이자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며 두 달째 파업 중인 MBC와 KBS 구성원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월요일(10월30일) 홈페이지를 통해 "MBC와 KBS 구성원들이 지난 10년간 진행돼 온 공영방송 탄압에 대항하기 위해 9월 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며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조속히 교체해 현재의 교착 상태를 끝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의 언론인들이 완전한 편집권 독립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법안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KBS 기자들의 편집권 독립 요구를 충족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앞서 지난 7월 20일에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사무실에 대포단을 보내, 지난 9년간 MBC에서 벌어진 부당한 언론인 징계와 노동 탄압, 방송 공정성 침해 사례들을 청취한 바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한국의 언론 독립성이 꾸준히 훼손되고, 언론인들의 자기 검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편 지난달 13일에는 세계 최대 언론단체인 국제기자연맹(IFJ)도 "한국의 공영방송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MBC 본부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국제 언론단체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